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19년만의 영화 개봉... 꿈만 같네요”



데뷔 40주년 이장호 감독... 20번째 영화 '시선' 17일 개봉

1960년대 중반 신필름에 들어가 신상옥 감독 밑에서 일했다. 밀바라부터 차근차근 일하다 1974년이 되어야 관련 데뷔작을 찍었다. 국도극장에서 단골 개봉한 이 영화는 105일 만에 46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처음으로 30만 관객을 넘었던 '미워도 다시 한번'(1967)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록이었다. 자고 일어났다가 스타가 된 주인공은 이장호 감독이고, 화제를 일으킨 영화는 신상일-안인숙 주연의 '별들의 고향'이다. 데뷔한 지 40주년이 된 이장호 감독이 신작 '시선'을 들고 다시 영화계로 복귀했다. '천재 신인'(1995) 이후 19년 만이다. '별들의 고향'을 비롯해 '바보 신인'(1983),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등 최근 한국영화사료원이 발표한 한국영화 100선 중 '톱 10'에 3편이나 올릴 정도로 이장호는 1970~80년대를 대표하는 감독이었다. 그러나 인생사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이장호 감독은 "지난 27년 동안 내리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했다.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지난 4일 서울 충무로 시네마서비스에서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나의 성공비결', 'EBS 특별기획', '부부', '부흥! 부흥! 브루미즈',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알짜 귀여운 밥', '2013 논구술', '영어특혜의 기본 I',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나의 성공비결', '행정사 시험대비강좌', etc.

봄 연인들 심금울린 '전달만해'

매드 클라운, 이들 연속 9개 음원차트 1위



래퍼 매드 클라운(본명 조동림·29·사진)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전달만해'가 이틀째 음원차트 정상에 활을 올렸다. 지난 4일 공개된 '전달만해'는 발매 당일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한 데 이어 5일(오전 10시 기준)에도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을 비롯해 엠넷닷컴, 지니,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벅스, 소리바다, 올레뮤직, 몽키3 등 9개 음원차트 1위를 지켰다. 언디옥에서 활동한 매드 클라운은 지난해 9월 씨스타의 소유와 듀엣한 '착해빠져'를 히트시키며 주목받아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전달만해'는 치열한 사랑의 끝 자리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7일(음 3월8일 戊申)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with descriptions and lucky numbers.

Table of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descriptions and lucky numbers.

TV 하이라이트

'삼청동 아영맘'의 요리 비법 공개



아이들을 위한 식단(EBS·오전 9시40분)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제철 채소를 이용해 만드는 정성이 담긴 밥상. 아무리 요리가 맛있어 보이고 재료가 좋아도 아이가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면역력 높여주는 엄야표 봄 제철 요리로 아이의 1년 건강을 책임지는 엄마의 특별한 요리 비법이 공개된다. '삼청동 아영맘' 블로그 주인공 장문지 씨. 인공수정으로 힘들게 낳은 큰 아이의 아토피로 아이가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지현 씨. 인스턴트식품이나 레토르트식품을 멀리하고 유기농 재료를 찾아 쓴다. 공감이 맞는 재료를 찾아 맛있는 음식을 곁집하는 열혈 엄마.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맛과 건강을 책임진다. '통밀 속 머핀'과 '딸기 찹쌀떡' 등을 소개한다.

도시 어부 재연세를 만나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은 서울 도심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리는 영종도. 섬이 '어촌'이라는 한 웃을 벗고 화려한 '도시'의 옷을 덧입으면서 어부들은 하나 둘 물로 떠났고, 남겨진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어종이 풍부하고 유난히 물고기가 싱싱하기로 소문났던 영종도의 옛 명성만 '구름뱃터'에 조용히 남았을 뿐, 이웃들이 떠나고 뱃터는 텅 비어 가지만 끝내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묵묵히 그물을 올리는 한 남자가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어장을 지키는 어부 박재연(43)씨. 그의 곁에는 복덩어리 아내 신정희(39)씨와 두 사람을 너른 바다의 품으로 안아준 부모님이 계시다. 오늘날도 여든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올리는 도시어부 재연 씨. 그를 만나 본다.

만능 재주꾼, 최무룡의 매력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은 연기에 못지않은 수준급 노래 실력으로 많은 여심을 흔들었던 그는 최초의 싱잉 스타. 고운 외모와 섬세한 매너에 더해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1960년대 만능 재주꾼, 최무룡의 매력을 파헤쳐본다. 국민 꽃할배 이순재, 현재 드라마 '쓰리데이즈'에서 활약 중인 배우 권병길, 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존경하는 배우 최무룡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김기덕, 이두용 감독은 그를 진정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칭한다. 또 김지미와 이훈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무룡, 그의 고뇌와 눈물겨웠던 5년간의 미국 생활의 실상이 밝혀진다. 최무룡의 굴곡진 인생을 들여다본다.